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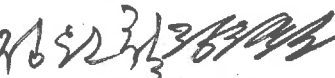

2022 경기예술지원 2차 【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-시각예술 분야 】 심의평

2022년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<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-시각예술 분야> 지원 심의는 총 2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, 최종적으로 20명의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.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<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>에 205명의 많은 시각예술 작가가 지원했습니다.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되었으며, 포트폴리오와 신작전시계획서를 중심으로 올해 작업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며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.

참석하신 세 분의 심의위원의 의견은 아래와 같았습니다.

- 시각예술 각 분야의 20~60대 전 연령층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지원 신청을 하여 우수한 계획안이 많이 눈에 띄었으며, 특히 20대 청년 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생애 첫 지원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계획서 상 신작계획이 누락되거나 포트폴리오의 자료제시가 부족하여 심의과정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나, 기후 위기, 도시 재개발, AR, VR, 사운드 등의 테크놀로지 등 현재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고자하는 참신하고 실험적인 제안이 많았으며, 특히 그간 기능적 우수성을 주로 부각하는 경우가 많던 공예 분야에서 뚜렷한 작업 철학과 컨셉을 기반으로 우수한 전시 기획을 제안한 몇 사례가 있어 매우 반가웠습니다.
- 새로운 예술에의 의지와 실험성이 돋보이는 지원서들이 많았습니다. 그 가운데 전시주제와 작품의 연계, 전시주제의 명확성, 구체성이 돋보이는 지원서들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.
- 본 사업은 생애 첫 창작지원을 받는 사업으로, 특히 20대 청년 작가들이나 경력 단절 후 어려운 중에도 작품 활동을 하려는 예술가들에게는 예술 활동에 대한 씨앗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심사를 위해 지원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지원자의 예술적 역량을 살펴보았으며, 생애 첫 지원사업인만큼 완성도 측면보다 예술 세계가 독창적이고 창의성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. 또한 제출한 전시계획서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와 주제 및 예산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 최종 지원자를 선정했습니다.

2022. 5. 6.

심의위원장 
심의위원 
심의위원 